

제 34회 일본 동물용 항균제 심포지움을 다녀와서

이인호 (국가 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 전문위원)



작년(4월 22일)에 이어서 올해도 4월 28일(土) 일본의 도쿄도(東京都) 무사시 사카이(武藏野)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 4호관 3층 312호실에서 개최된 제 34회 일본 동물용 항균제 심포지움에 단독으로 참석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심포지움 참석과 동물용의약품 및 평가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28일의 심포지움 참석에 앞서서 26일 동경도 중앙구 신가와(新川)에 위치한 (社)일본과학사료 협회를 방문해서 2007년 1월 30일에 발간된 사료 첨가물의 평가기준 및 그 시험방법(제3판)을 구입한 뒤에 협회 사무국장 겸 기술부 부장인 요네모치(米持千里) 선생에게 일본의 사료첨가제 감축정책을 재 수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축 등에서의 항균성 사료첨가물의 사용이 공중위

생에 미치는 항균성내성위험의 평가법의 검토(平成14년,2002).平成 14년도 항균성물질의 위험평가 사업보고서」의 전문을 연구목적을 위해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절대로 외부 반출을 할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려 숙소인 신주꾸(信宿)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마감하였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에는 동경도 고꾸분지(國分寺)에 위치한 일본 동물의약품검사소 기획연락실의 오이시(大石弘司)실장을 방문하여 한국에서부터 Fax와 국제전화를 통해 증정을 약속받기로 한 「동물의약품검사소 50주년 기념지」 및 「50년의 기록 및 연구업적집」에 대한 자료와 CD를 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 간단한 담소와 다과를 함께 한 뒤에 다음 방문지인 일본 동물용의약품협회(동경도 中央區 日本橋)와 신주꾸(信宿)의 와세다 지역 부근에 위치한 Dairy Japan 사를 방

문하기 위해 점심식사도 거른 채 도보와 지하철 행군을 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동물약품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여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일본 동물용의약품협회 방문에서는 본인이 이번 방문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2006년 9월 1일 발간된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機器)요람」외에도 우리나라 동물약품편람(2002)에 해당되는 「가축공제약효별 평가기준(2007년 발간)」 및 동물약품 공정서에 해당되는 「항생물질 평가기준(2006년 발간)」을 비롯해서 「동물약품 판매업자 윤리강령」과 「GLP연구보고서」까지 특별 기증을 받아 현재 1991년에 1차 개정을 한 이후로 16년 이상 재개정판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동물약품협회부설 연구소에 의해서 재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2006년까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작업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우리와 일본의 차이인가 하고 되뇌이니 씩씩한 생각이 들곤 했다.

2 일간의 예비일정을 소화하고, 28일 이수현 씨의 기념 판이 역사에 보존되어 있는 신주꾸 부근의 오꾸보(大久保)역에서 JR주호꾸센(中央線)을 타고 무사시 사카이(武藏境)역에서 하차하여 남쪽 출구로 나와 미타까역 선로방면으로 3분정도를 걸어서 심포지움이 개최되는 일본수의 생명과학대학(우리나라 전남대학교와 자매교류대학)을 심포지움의 특별강연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여 학교교정과 부속 동물병원을 둘러보고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와 휴식을 취하면서 심포지움 개최에 앞서서 시작된 동물용 항균제 연구회 19년도 총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동물용 항균제연구회는 동물용 항균제(항균성물질)의 기초 면과 응용 면 및 약제내성균에 관한 연구조사, 지식 및 기술의 보급은 물론이고, 동물의 위생 면 및 공중위생 상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다 더 약제사용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수산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전에 일본수의축산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다카하시(高橋 勇)교수(현재 동물용 항균제연구회 고문)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연구회로서 이 연구회에는 대학교수, 동물약품검사소, 농림수산성, 과학사료협회, 동물용의약품협회 회원사들을 비롯한 일본의 많은 수의 관련 전문지식층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회에서 하는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www.jantianim.jp).



- 1) 동물의 항균제의 기초적 및 응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및 문헌, 정보의 수집
- 2) 가축·가금·어류 등의 내성균의 실태조사 및 내성균 출현기전 및 그 방지책의 검토
- 3) 세균의 약제감수성 및 내성균에 관한 문헌 정보 및 균주의 수집
- 4) 세균의 약제감수성 및 내성균에 관한 검사기술기준의 작성
- 5) 항균제의 축·수산물에서의 잔류에 관한 문헌, 정보의 수집
- 6)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교류
- 7)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강연회, 연구발표회의 개최 및 참고 자료의 배포 등을 통해서, 그 지식기술의 보급을 행한다.
-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동물용 항균제 Manual(Inter Zoo사 발행, 2004년 4월)도 일본 낙농학원대학 수의학부 수의공중학교실의 다무라(田村)교수(위원장, 2005년에 ISSAR연자로 초청되어 서울 코엑스에서 강연함)를 비롯한 이 연구회 회원들이 편찬하여 판매인세를 적립하고 있으며, 년 간 1회 발행하는 동물용 항균제 연구회보(본인이 정식으로 연구회보의 형태로 발간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회보를 모두 소장하고 있으니, 학문적 목적이나 기술보급의 목적으로 이 연구회보가 필요하신 분은 017-302-8865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도 세미나의 내용원고를 담은 지난 호를 1



권에 500엔씩 날권으로 판매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심포지움 당일에는 특별강연과 주제발표자들의 강연요지가 담긴 유인물만을 배포하기 때문에, 발표자들의 강의내용 전체를 회보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2008년 4월에 다시 심포지움에 참가하거나 회원으로 가입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고는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 34회 동물용 항균제 심포지움에서는 특별강연으로서 국립감염증 연구소 아라가와(荒川)박사의 「사람임상현장에서 감시되는 약제내성균의 동향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에 심포지움에서 「축·수산분야에 있어서 약제내성균의 동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분의 연자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1. 다무라(田村) 낙농학원대학 수의학부교수. 식

용동물에 있어서 내성억제책의 방책 -항균제의 신중사용의 원칙

2. 오오니시(大西). 북해도 근실(恨室)지구 NOSAI검사실.

유방염 기인 균의 약제내성화의 현상과 VRE, ESBL산생 균과 MBL산생균, 다제내성녹농균(MDPP)의 분리 상황

3. 오오이시(大石). 농림수산성 수산안전실.

수산용의약품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4. 오와니시(川西). 농림수산성 축수산안전관리과.

알파 용혈성 연쇄상 구균증 및 류결절증의 약제내성과 그 역학 - 각종 알파 용혈성 연쇄상 유래주의 성상해석을 포함해서(여성연자)

비록 본인이 외국어 실력이 빈약하여 강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을 피부로 체감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의 뇌리를 스치는 강의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한다.

「사람 임상현장에서 감시되는 새로운 내성균의 동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아라가와 박사의 강연에서는 일본의 사람분리 대장균에

서 동물전용의 아프라마이신(Apramycin)으로부터 1408번째의 A를 메칠 화하는 효소(NpmA)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발표 자료를 보고서 이제는 동물전용의 항균제 사용이 공중보건상의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아라가와 박사가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을 다시 확인하여, 내성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후에 이어진 다무라교수의 강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내성균의 대책으로 하나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균제의 순환사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균제의 순환사용요법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순환요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 사용범위 ▶ 수의사의 의사통일 ▶ 사용우선순위 ▶ 사용기간 ▶ 검사체계 ▶ 경제효과 ▶ 항균제나 내성균에 대한 교육의 철저 등의 요건이 병행이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다무라 교수의 강연을 듣고, 맞는 말씀이자, 항균제 감축에 대한 동향을 매우 예리하



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무라 교수와는 일본에서 2번, 우리나라에서 1번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직접 강연을 들은 바 있고, 다무라 교수의 강연 자료는 E-mail로 요청하여 받아서 수의사회지를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수산용의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발표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산용 백신의 판매액이 항생제의 판매액보다 높은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항생제에 대해서는 다제내성화 경향을 나타내 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트리메토프림과 가나마이신도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발표를 보면서 양식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퍼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발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심포지움에서 본인이 발표 자료를 수차례 국내에도 소개한 바 있는 일본 엘랑코사의 후꾸모도(福本)박사와도 재회를 한 바 있고,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 미생물학실의 사와다 다구찌(澤田拓士)

교수에게 인계한 고꾸에 에이지(小久江 榮一) 명예교수(현재 일본 臨床獸醫誌에 최신 해외 동물약 정보를 연재하는 것을 비롯해서 왕성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함)와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의 다카하시(高橋) 명예교수의 왕성한 토론모습은 본인에게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자극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지경이다.

본인이 이 연구회에 2회에 걸쳐서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우리나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수의과대학과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의 관련 전문 지식층과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한 바와 같이 관련 협회, 동물약품검사소, 출판사 등을 비롯한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러한 연구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쉬운 정도를 넘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8년 4월에 개최되는 제 35회 동물용 항균제연구회 심포지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일본의 수의전문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는 바이다. 

